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인물로 보는 라이벌 한국사

김갑동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 강의 목표 • 주요 학습지점 •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38
05	강의 전문(국문)		44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본 강좌는 한반도 역사의 각 시대별 상황 속에 전개된 다양한 이야기를 인물사 연구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들의 활약과 사상, 상호간 라이벌 관계에서 벌어지는 선택과 결과, 그리고 후대의 평가를 다룬다.
- 이 강좌를 통해 학습자는
 - 한국 고대부터 중세 한말기까지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을 살펴보고, 그 시대 상황을 헤아리고, 후대의 평가를 이해해본다.
 - 한반도의 역사를 인물사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시대적 흐름을 꿰어볼 수 있다.
 - 주요 역사 인물의 당시 상황인식, 선택과 판단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서 재평가해보고, 역사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볼 수 있다.

주요 학습지점

본 강좌는 총 11주차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의 강의는 10주 동안 진행되며, 11주차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각 주의 강의는 주제별로 2~3차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강의내용을 확인하는 퀴즈와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읽기 자료 등 비영상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매주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활동을 마쳐야 해당 주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수자는 주차별로 한반도 삼국시대부터 한말기까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시기의 주요 인물을 두 사람씩 선정하여 각자의 이해 방식과 결단,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자는 주요 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당대의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본인의 판단과 평가의 시각을 가져볼 수 있다.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좌는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한반도 역사 이야기이다. 사람에 대한 탐구는 과거나 현재 동일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흥미와 친근감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인물의 행동과 사상, 결정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관에 대한 안목을 키워볼 수 있다. 아울러 인물사 탐구는 역사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인간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넘치고 직관적인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는 한반도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당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추동력의 실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강의 내용과 강좌가 제공하는 비영상 학습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구해볼 수 있다.

- (1) 역사의 현재성과 인물사 학습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 (2) 한반도 고대 역사 전개의 주요 흐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 (3) 상호 대립적이거나 다른 관계에 있는 주요 역사 인물을 탐색해보면서 선험적 역사 평가와 비판의식을 길러볼 수 있다.



강의 목차

01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1 서론 - 역사의 현재성 2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3 삼국의 성장과 대립 4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02	남북국의 성립과 김춘추, 연개소문	1 신라의 반도 통일 정책 2 김춘추와 연개소문 3 신라의 반도 통일 4 발해의 등장과 남북국 관계
03	한국 불교사의 전개와 원효, 의상	1 한국 불교사의 전개 2 고려와 조선시대의 한국 불교 3 불교사의 양대 산맥 - 원효 4 불교사의 양대 산맥 - 의상
04	고려의 건국과 왕건, 견훤	1 신라 말기의 사회 상황 2 신라 말기 부패와 사회변화 3 후삼국의 등장과 통일 - 궁예와 견훤 4 후삼국의 등장과 통일 - 왕건
05	고려 중기의 사회 상황과 묘청, 김부식	1 고려 전기의 사회 상황 2 고려 중기의 사회 상황과 서경천도 3 묘청과 김부식 4 묘청의 난



강의 목차

06	고려의 멸망과 최영, 이성계	1	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
		2	고려말 신진사류와 개혁운동
		3	최영
		4	이성계와 최영
07	조선 초기 유교 정치와 성삼문, 신숙주	1	조선 초기 태조~태종대의 정치 상황
		2	조선 초기 세종~세조대의 정치 상황
		3	성삼문과 단종 복위
		4	신숙주와 역사적 평가
08	임진왜란과 이순신, 원균	1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2	조선의 임진왜란 대응과 정유재란
		3	이순신과 임진왜란
		4	이순신과 원균의 평가
09	조선 후기의 붕당정치와 송시열, 윤증	1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
		2	조선 후기의 탕평정치와 세도정치
		3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
		4	윤증과 회니시비
10	쇄국, 개화 정책과 대원군, 명성황후	1	세도 정치기의 사회 상황
		2	홍경래의 난과 천주교 박해
		3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4	개화정책과 갈등 양상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김 갑 동



강의 교안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김 갑 동

1주차 | 학습목표



- 역사의 현재성을 살펴볼 수 있다.
- 인물사 학습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다.
- 삼국의 대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서론 - 역사의 현재성

- 역사의 현재성

03. 삼국의 성장과 대립

-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 삼국의 성립
- 고구려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백제의 기습
- 상황의 역전과 광개토왕의 대제국 꿈

학습목표

학습내용

02.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04.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 백제,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다

1주차 |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1주차 | 학습목표
1차시. 역사의 현재성



학습목차

학습목표 ■ 역사의 현재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

- 역사적 사실의 이해
 - 인간의 동질성, 추체험
- 입장구속성
 - 의식의 독자성과 자율성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

- 객체보다 주체가 중요
 - 현재의 시각과 처지가 반영
 - 예) 좋아하는 음식, 옷, 나무, 계절, 당파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

- 객체보다 주체가 중요
 - 현재의 시각과 처지가 반영
 - 예) 좋아하는 음식, 옷, 나무, 계절, 당파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

- Croce
 -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 E. H. Carr
 -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과 주관적 인식의 예

- 장님 코끼리 만지기
 - 다리(콘크리트 기둥), 이빨(딱딱한 뼈), 코(두꺼운 고무호스), 귀(커다란 연꽃 잎)
- 해석
 - 수학자(더하기), 구호활동가(적십자), 목사(십자가), 교통전문가(사거리)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과 역사가의 시각

- 어떤 입장에서 서술 - 민중의 시각
- 어떤 시각이라도 부분적인 진실
 - 끊임 없는 자기반성과 입장 전환 필요
 - 전체적인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1차시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과 성찰의 필요성

- 지나치게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게 되면 역사를 왜곡하게 될 수 있음
 - 민중의 역할 증대가 한국사의 발전 과정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서론 - 역사의 현재성

- 역사의 현재성

03. 삼국의 성장과 대립

-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 삼국의 성립
- 고구려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백제의 기습
- 상왕의 역전과 광개토왕의 대제국 꿈

학습목표

학습내용

02.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04.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 백제,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다

1주차 |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2차시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2차시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인물사 학습의 단점

- 개인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
- 흑백 논리 위험성
- 역사의 구조적 발전 경시
 -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면 과제 탐구 필수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2차시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인물사 학습의 장점

- 흥미와 친근감
- 역사에 있어 인간의 역할
- 바람직한 인간상, 롤 모델 설정
- 라이벌 인물을 통해 판단력 배양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2차시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인물사 학습의 단점

- 개인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
- 흑백 논리 위험성
- 역사의 구조적 발전 경시
 -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면 과제 탐구 필수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2차시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학습정리

- 인물사 탐구는 올바른 인간관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
- 우리와 똑같이 한 생을 살아갔다는 측면에서
흥미와 친근감 제공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2차시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다음 차시에서는

- 삼국의 대립
- 성왕, 진흥왕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서론 - 역사의 현재성

- 역사의 현재성

03. 삼국의 성장과 대립

-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 삼국의 성립
- 고구려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백제의 기습
- 상황의 역전과 광개토왕의 대제국 꿈

학습목표

학습내용

02.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04.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 백제,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다

1주차 |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1주차 | 학습목표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학습목차

학습목표

- 한반도 고대 국가의 특징과 삼국의 성립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내용

-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 삼국의 성립
- 고구려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백제의 기습
- 상황의 역전과 광개토왕의 대제국 꿈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한국의 역사

-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구석기, 신석기 시대

- 무리사회(구석기)
 - 강가(동굴, 바위그늘), 땀석기, 채집, 사냥, 불
- ↓
- 씨족사회 (신석기)
 - 수렵, 목축, 농사, 토기, 간석기, 정착, 움집, 농경(벼농사)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청동기 시대

- 군장국가(청동기)
 - 비파형동검, 민무늬토기, 정복전쟁, 권력발생, 고인돌, 고조선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대국가의 성립

- 고대국가
 - 고구려
 - 백제
 - 신라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대국가의 특징

- 율령 반포
- 영토확장(정복국가)
- 불교수용(사상통일)
- 왕위세습(형제상속 → 부자상속)
 - 중앙집권화, 왕권강화



삼국의 성립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신라의 건국과 박혁거세

- 진한 6촌
 - 알천 양산촌(금량부 이씨)
 - 돌산 고허촌(사량부 정씨)
 - 무산 대수촌(모량부 손씨)
 - 취산 진지촌(본피부 최씨)
 - 금산 가리촌(한기부 배씨)
 - 명활산 고야촌(습비부 설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신라의 건국과 박혁거세

- 나정에서 자주빛 알 발견 → 박혁거세(朴赫居世)
- 13세에 왕위에 오름(B.C. 57)
 - 나라 이름: 서라벌, 사로, 계림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신라 건국 이후 고구려, 백제 건국

- B.C. 37, 고구려 건국
- B.C. 18, 백제 건국
 - 삼국 형성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건국과 고주몽(동명성왕)

-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 + 하백(河伯)의 딸 유화
 - 고주몽 탄생 (B.C. 58년 경)
- 고주몽의 망명
 - 홀본(楸本) 지역을 도읍으로 정함
 - 홀본(楸本): 오늘날 중국 환인 지역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건국과 고주몽(동명성왕)

- 고구려의 개국 시조이자 초대 군주
- 고구려 중심 세력: 5부족
 - 계루부,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백제의 건국과 온조

- 고주몽이 졸본부여에서 왕이 되어
비류와 온조를 낳음
- 첫째 아들인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떠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백제의 건국과 온조

- 비류는 미추홀(인천)에서 온조는
한성에서 각각의 나라를 세움
- 온조는 한성에 '십제(十濟)'라는 나라를 세움
→ 이후 미추홀의 비류 세력이 합세
→ '백제(百濟)'가 됨(B.C. 18)



고구려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백제의 기습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백제의 성장

- 고이왕
 - 6좌평 제도
 - 16관등 체계 수립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4세기 백제의 전성기

- 근초고왕
 - 울령 반포
 - 고흥의 《서기》 편찬
 - 동진과 교류하여 조공 책봉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4세기 백제의 전성기

- 근초고왕
 - 왜의 도움으로 가야, 마한 지방 공격
 - 칠지도 왜왕에게 하사



백제의 영토 확장

[출처01]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4세기 백제의 전성기

- 요서경략설
 -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 여리에 있었다. 그 후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였는데 백제가 다스린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하였다.”

《송서》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



상황의 역전과 광개토왕의 **대제국** 꿈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발전

- 왕망의 신(新) vs 하구려(下句麗)
- 태조왕 : 요동 일부 점령
- 고국천왕 : 동·서·남·북·중의 5부 체제,
부자상속 체제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위기

- 동천왕 : 위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수도가 점령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위기

- 미천왕 : 요동의 현도성 공파, 서안평 공격
313년, 낙랑군 점령, 한사군 소멸
- 고국원왕 : 전연 모용황의 침입으로 궁궐 불타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 됨, 백제와 대립
→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체제 정비

- 소수림왕(371~384)의 체제 정비
 - 불교 수용
 - 유교 교육 기관으로 태학 설립
 - 율령 반포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고구려의 위기

- 고국양왕(384~391)의 위기
 - 모용수의 후연(後燕)과의 전쟁에 패하여 요동을 잃음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광개토왕의 이름

-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 ‘광개토왕’ 혹은 ‘호태왕’이라고 부름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 광개토왕대(391~413) 대외 정복사업
 - 시라무렌강 유역 거란(비려) 정벌
 - 396년 백제 정벌(아신왕)
 - 북위, 후연 공격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 광개토왕대(391~413) 대외 정복사업
 - 398년 연해주 속신 정벌
 - 399년 신라 파병, 왜 축출
 - 410년 동부여 공략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5세기 백제의 위기

- 아신왕(392~405)
 - 고구려의 북속국이 됨
- 아신왕 사후 후계자 분쟁 발생
- 개로왕 : 귀족에 대한 통제 강화, 고구려 침입 대비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왕비

- 아버지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림
 - 높이 6.39m, 글자 1775자
-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위치
-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기록



광개토왕비

[출처02] 위키미디어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백제정벌

- 평양천도(427, 장수왕 15)의 이유
 - 고구려의 북쪽에 강력한 북위가 존재하여 북방 진출이 어려움
 - 평양은 고구려가 요동이나 한반도 남부로 진출하는 거점 역할이 가능한 유리한 위치



[출처03]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백제정벌

- 백제 정벌(475, 장수왕 63)
 - 도림의 공작
 - “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위세와 많은 업적으로써 남의
이목을 두렵게 해야 하건만, 성곽이 수리되지 않고 궁실도
고치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이 맨땅에 임시로 묻혀 있고...”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백제정벌

- 백제 정벌(475, 장수왕 63)
 - 개로왕 전사
 - 문주왕의 웅진 천도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6세기 삼국의 상황

- 고구려의 세력 약화
 - 고구려(문자명왕) vs 신라 + 백제(나제동맹)
 - 고구려 양원왕 즉위 : 고구려 귀족 세력의 분열
 - 고구려 vs 돌궐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백제의 상황

- 신라에 화친을 청함
 - 신라에 말 2필과 흰 기러기를 보냄
 - 신라와의 동맹이 이루어짐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웅진기의 백제

- 문주왕대(475) 웅진(공주)천도
 - 왕권 약화
 - 왕비족인 해씨 세력의 권력 장악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웅진기의 백제

- 삼근왕: 왕권 약화
- 동성왕: 신라 왕족인 비지의 딸과 혼인
 - 종래의 귀족 배제
 - 신흥 귀족 등용: 연씨, 백씨, 사씨 등용
 - 22명의 왕족을 '담로'라는 벼슬에 임명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웅진기의 백제

- 동성왕(479~501)
 - 백가를 위사좌평에 임명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웅진기의 백제

- 동성왕(479~501)
 - 백가가 가림성(부여 임천)에서 왕을 살해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웅진기의 백제

- 무령왕(501~523)
 - 이름은 사마, 동성왕의 이복 형
 - 백가를 처단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웅진기의 백제

- 무령왕(501~523)
 - 중국 양나라와 국교를 맺음
 - ‘영동대장군’이라는 작위를 받음
 - ‘갱위강국(更爲強國)’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사비천도기의 백제

- 538년(성왕 16) 천도와 “남부여”
 - 사씨 세력의 권유
 - 동성왕 때 부터 천도를 준비
 - 불교 진흥 - 겸익 “전륜성왕(轉輪聖王)”
 - 양나라와 교류 - 수동장군(綏東將軍)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사비천도기의 백제

- 성왕(523~554)의 고구려 공격
 - 성왕 18년, 우산성 공격
 - 성왕 28년, 도살성 공격
 - 성왕 29년, 평양성 공격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신라의 성장

- 내물왕(356~402)
 - ‘마립간’ 칭호 사용
 - 김씨 왕위 독점 세습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신라의 성장

- 지증왕(500~514)
 - 우경 시작, 신라 국호, 왕호 사용,
 - 우산국 복속(이사부)
- 법흥왕(514~540)
 - 울령 반포, 백관의 공복 제정, 건원 연호 사용,
 - 김해의 금관가야 병합, 불교 공인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신라의 성장과 한강 유역 점유

- 진흥왕(540~576)
 - ‘개국’ 연호 사용
 - 국사 편찬(거칠부), 화랑도 제도화
 - 백제와의 동맹으로 한강 유역 탈취(551)
 - 고령의 대가야 정벌
 - 순수비 건립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3차시 삼국의 성장과 대립



학습정리

- 6세기 경 삼국의 형세
 - 고구려가 쇠약해지면서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백제와 신라가 야망을 꿈꾸는 상황

SOURCES



[출처01]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출처02] 위키미디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f/Gwanggaeto_Stele.jpg

[출처03]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서론 - 역사의 현재성 역사의 현재성	03. 삼국의 성장과 대립 - 고대국가의 성립과 특징 - 삼국의 성립 - 고구려의 지나친 팽창정책과 백제의 기습 - 상황의 역전과 광개토왕의 대제국 꿈
학습목표		
학습내용	02.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인물사 학습의 장, 단점	04.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백제,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다

1주차 |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1주차 | 학습목표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학습목차

학습목표

- 고대 국가의 인물 중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경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백제,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다

1주차 | 학습목표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백제,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

- 이사부를 파견하여 도살성과 금현성 획득
- 거칠부 등 8장군을 보내 고구려 10성 차지
-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백제 성왕의 대응

- 신라 진흥왕에게 딸을 시집 보냄
- 이후 성왕이 관산성 침입을 강행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관산성 위치 :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
- 백제 + 가야 + 왜 연합 :
구타모라(久陀牟羅)에 요새 구축 → 관산성 함락
- 신라 김무력이 관산성 탈환을 꾀함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삼국사기》 신라본기(진흥왕 15년 7월)
·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주병(州兵)을 이끌고 와서 교전함에 이르렀는데 비장(裨將)인 삼년산군의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삼국사기》 신라본기(진흥왕 15년 7월)
 - “이에 신라군이 승승장구하여 크게 이겨 좌평(佐平) 4인과 사졸 29,600인을 죽이니 말 한 필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이때 신라가 좌지촌(佐知村) 사마(飼馬) 고도(苦都)에게 일러 말하기를,
「고도는 천한 노비요 성왕은 유명한 임금이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지금에 천한 노비로 하여금 유명한 임금을 죽이도록 하는 것은 후세에 전하여 입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고도가 이에 성왕을 잡아 재배(再拜)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왕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성왕이 대답하기를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고도가 말하기를
「우리 국법에는 맹약을 위반한 자는 비록 국왕이라도 마땅히
노비의 손으로 목을 쳐도 됩니다」 라고 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성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허락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매번 생각함에 평상시의 고통이 뼈에 사무쳤는데
돌아보건대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는 목을 빼어 참수를 허락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 《일본서기》
 - “고도가 머리를 참하여 죽이고 땅 속에
굴을 파 시체를 묻었다.”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백제의 관산성 전투 패배 이유

- 성왕이 단 40여기로 왕자 여창을 보기 위해 출동함
- 백제의 왕족과 귀족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함
- 대규모 토목 공사, 빈번한 전쟁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신라의 관산성 전투 승리 이유

- 김무력의 활약
-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 사업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



1주차 서론 및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 | 4차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



마무리

- 신라 진흥왕
 -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역사적 안목 부족
 - 협력 관계를 깨고 백제의 땅을 빼앗음

SOURCES



[출처01]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References



- 공석규, 《고구려의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 금경숙, 《고구려전기 정치사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 강선 외,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7.
- 노종국, 《백제 정치사 연구》, 1988.
- 신형식, 《백제사》, 이화여대출판부, 1992.
- 노태돈,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 서영수, 〈광개토왕릉비문의 정복기사 재검토〉, 《역사학보》 96, 1982.
- 김주성, 〈성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전쟁》,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1998.
-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읽기자료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324029>

퀴즈

다음 중 한국 고대국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율령반포
- ② 영토확장(정복국가)
- ③ 유교수용(사상통일)
- ④ 왕위세습(형제상속 → 부자상속)

정답: ②

해설: 한국 고대국가의 특징으로는 불교 수용이 있다.

퀴즈

다음 중 삼국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의 개국 시조이자 초대 군주는 박혁거세이다.
- ② 온조는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다.
- ③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국가이다.
- ④ 신라는 기록상으로 삼국 중에 가장 먼저 건국된 것으로 나와 있다.

정답: ①

해설: 고구려의 개국 시조이자 초대 군주는 주몽이다.

퀴즈

다음 중 웅진 시기 백제의 국왕이 아닌 사람은?

- ① 동성왕
- ② 문주왕
- ③ 삼근왕
- ④ 고이왕

정답: ④

해설: 고이왕은 웅진 천도 이전의 백제 국왕이다.

퀴즈

광개토왕 비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의 건국 신화
- ②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
- ③ 광개토왕의 후비들
- ④ 광개토왕의 수묘연호

정답: ③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3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퀴즈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한 이유를 2개 이상 제시하세요.

정답:

- ① 성왕이 40여 명의 소규모 군사로 왕자 여창을 찾아간 점
- ② 이 전투에 대한 왕자와 귀족의 견해가 일치되지 못한 점
- ③ 수도의 천도로 인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빈번한 전쟁으로 농민과 군사들이 피폐해진 점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4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052 --> 00:00:54,454

안녕하세요.

2

00:00:54,454 --> 00:01:02,829

저는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갑동 교수입니다.

3

00:01:02,829 --> 00:01:09,702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할 제목은 라이벌 인물 한국사입니다.

4

00:01:09,702 --> 00:01:16,476

즉 한국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라이벌

5

00:01:16,476 --> 00:01:25,385

라이벌 관계를 가졌던 두 사람의 인물들을 추출해서 그들의 업적과 활동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6

00:01:25,385 --> 00:01:36,396

우리가 이 사람들 둘 중에서 누가 더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7

00:01:36,396 --> 00:01:48,274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1강에서는 서론으로써 역사의 현재성이라든가 인물사 탐구의 장단점

8

00:01:48,274 --> 00:01:57,684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의 관계 이런 것을 살펴본 다음에

9

00:01:57,684 --> 00:02:05,625

두 번째로는 남북국의 성립과 김춘추, 연개소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00:02:05,625 --> 00:02:12,765

세번째는 한국 불교사의 전개와 원효, 의상을 살펴보고,

11

00:02:12,765 --> 00:02:20,106

네번째는 고려의 건국과 왕건, 견훤 이런 라이벌 인물들을 살펴보고,

12

00:02:20,106 --> 00:02:25,478

다섯번째는 고려 중기의 사회 상황과 묘청, 김부식.

13

00:02:25,478 --> 00:02:30,483

그리고 여섯번째는 고려의 멸망과 최영, 이성계.

14

00:02:30,483 --> 00:02:35,822

일곱 번째는 조선 초기의 유교정치와 성삼문, 신숙주.

15

00:02:35,822 --> 00:02:39,526

여덟 번째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원균.

16

00:02:39,526 --> 00:02:44,731

아홉 번째는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와 송시열, 윤휴.

17

00:02:44,731 --> 00:02:57,610

마지막 열 번째로 구한말의 쇄국, 개화 정책과 대원군, 명성왕후 이런 순으로 10강에 걸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00:02:57,610 --> 00:03:11,157

오늘은 우선 1강으로서 역사의 현재성 과 인물사의 장단점을 비롯해서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00:03:11,157 --> 00:03:18,531

우선 서론적으로 역사의 현대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00:03:18,531 --> 00:03:23,670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21

00:03:23,670 --> 00:03:30,243

그렇다고 해서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의 모음 이런 것도 아니죠.

22

00:03:30,243 --> 00:03:46,226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순이 어디 에 기원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탐구해 보려 할 때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

00:03:46,226 --> 00:03:55,735

나아가 역사 연구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실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4

00:03:55,735 --> 00:04:01,941

즉 역사에는 언제나 현재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25

00:04:01,941 --> 00:04:10,483

우리는 역사책을, 역사를 탐구하고, 역사책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합니다.

26

00:04:10,483 --> 00:04:26,366

단순한 기록만으로 ‘어떻게 그러면 당시의 상황과 전개 과정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동질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

00:04:26,366 --> 00:04:43,650

즉 인간의 모습은 각기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 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감정 표현 방식도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동질적이라는 것이죠.

28

00:04:43,650 --> 00:04:55,561

예컨대 이틀 간 밥을 먹지 못했을 때 과거의 인간이나 현재 인간이나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이죠.

29

00:04:55,561 --> 00:05:07,440

물론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프지 않은 척 참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30

00:05:07,440 --> 00:05:17,250

똑같은 논리로 백성들이 지배자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했을 때 그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1

00:05:17,250 --> 00:05:25,325

그것이 극에 달하면 결국 폭동이나 무력항쟁이 벌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32

00:05:25,325 --> 00:05:33,766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나아가 거기서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33

00:05:33,766 --> 00:05:50,516

또한 역사적인 한 인간의 생애를 기록으로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처지가 한 번 되어서 추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사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34

00:05:50,516 --> 00:05:57,857

그러나 인간은 한 개체로서 의식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집니다.

35

00:05:57,857 --> 00:06:04,430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36

00:06:04,430 --> 00:06:10,370

다시 말해 완전한 역사적 진실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37

00:06:10,370 --> 00:06:23,449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의 말처럼 그것이 본래 어떻게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완전하게 그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8

00:06:23,449 --> 00:06:35,728

결국 역사가나 역사책을 읽는 독자는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39

00:06:35,728 --> 00:06:51,677

그러나 그 자신의 관점이란 자신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사회적 현실이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가 속한 집단이나 정당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40

00:06:51,677 --> 00:06:57,517

즉 인간은 누구나 입장 구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41

00:06:57,517 --> 00:07:03,990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주체를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42

00:07:03,990 --> 00:07:15,468

아무리 객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인식은 불가능합니다.

43

00:07:15,468 --> 00:07:30,349

마찬 가지로 과거의 시간 속에 아무리 많은 역사적 사실이 묻혀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44

00:07:30,349 --> 00:07:43,896

가령 역사 교육이 없어지고 과거에 대한 기록이 소멸되어 그 누구도 과거의 이순신 장군이나 송시열 같은 학자

45

00:07:43,896 --> 00:07:53,806

이런 인물이 있었음을 모르게 된다면 임진왜란이나 동학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46

00:07:53,806 --> 00:08:01,614

그때 역사는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47

00:08:01,614 --> 00:08:13,626

후대가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와의 연결성을 인식할 때 역사는 비로소 의미를 띠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48

00:08:13,626 --> 00:08:29,342

자 예를 들어서 창 밖에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건 없건 언제나 객체로서 그 단풍나무는 존재합니다.

49

00:08:29,342 --> 00:08:38,518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낌으로써 그것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50

00:08:38,518 --> 00:08:58,237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을이 되면 색깔이 변하는 나무는 지조가 없다고 하면서 사철 푸른 소나무를 더 아름답게 여기고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죠.

51

00:08:58,237 --> 00:09:12,418

이 주체를 거울에 비유화면 거울이 평면 거울이냐 볼록 거울이냐 아니면 오목 거울이냐에 따라서 상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52

00:09:12,418 --> 00:09:23,162

이렇듯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는 항상 현재 시각과 처지가 반영되기 마련이죠.

53

00:09:23,162 --> 00:09:30,670

그래서 크로체라는 역사학자는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했으며

54

00:09:30,670 --> 00:09:40,012

E.H.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 고 하기도 했습니다.

55

00:09:40,012 --> 00:09:49,188

주관적인 인식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또는 십자가 표시에 대한 해석 차이 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56

00:09:49,188 --> 00:10:01,200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져보고

57

00:10:01,200 --> 00:10:12,345

콘크리트 기둥처럼 생겼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커다란 연꽃잎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58

00:10:12,345 --> 00:10:27,393

그러나 이런 사람의 역사 해석 또는 코끼리에 대한 인식, 이것을 틀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또 각자의 입장에서는 맞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59

00:10:27,393 --> 00:10:35,134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

00:10:35,134 --> 00:10:42,708

그렇다면 역사가는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61

00:10:42,708 --> 00:10:51,651

어떤 당파나 어떤 계급의 시각에서 역사를 기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62

00:10:51,651 --> 00:11:05,831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특정 당파나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3

00:11:05,831 --> 00:11:15,608

역사의 기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이지 지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64

00:11:15,608 --> 00:11:24,784

그러나 역사가도 인간인 이상 완전히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65

00:11:24,784 --> 00:11:36,862

따라서 부득이하게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써야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서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6

00:11:36,862 --> 00:11:49,375

즉 지배자나 자본가와 같은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이라는 다수의 시각에서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7

00:11:49,375 --> 00:12:02,755

왜냐하면 역사의 근본적인 목표는 헤겔이 말한 것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68

00:12:02,755 --> 00:12:07,626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69

00:12:07,626 --> 00:12:18,437

지나치게 주체나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게 되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70

00:12:18,437 --> 00:12:25,544

예컨대 현대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71

00:12:25,544 --> 00:12:38,657

그렇다고 이러한 관점을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지나치게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2

00:12:38,657 --> 00:12:49,268

오히려 점차적인 민중의 역할 증대를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73

00:12:49,268 --> 00:12:55,908

역사학의 본질은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4

00:12:55,908 --> 00:13:08,954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역사가가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평가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한 진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75

00:13:08,954 --> 00:13:18,197

아무도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서 완전한 정답을 얻어올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76

00:13:18,197 --> 00:13:31,210

때문에 같은 역사가끼리도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가진 견해 속에 부분적인 진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7

00:13:31,210 --> 00:13:40,119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가 자신들도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33,800

그러면 이제 인물사 탐구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인물사 탐구를 할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00:00:33,800 --> 00:00:47,247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인물사 탐구는 흥미와 친근감을 준다는 그런 장점이 우선 있습니다.

3

00:00:47,247 --> 00:00:57,323

과거를 살아간 인물들의 생애와 활동이 현재 자신의 생과 비슷하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4

00:00:57,323 --> 00:01:07,600

과거의 인물도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 또는 교우관계, 이성관계, 사회관계 등을 겪었죠.

5

00:01:07,600 --> 00:01:21,047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대처했는가 하는 것은 똑같은 처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선 흥미와 친근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6

00:01:21,047 --> 00:01:32,659

누구나 타인의 연애담이라든가 모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이야기에 상당 한 흥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7

00:01:32,659 --> 00:01:38,798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생활의 지혜와 교훈을 얻습니다.

8

00:01:38,798 --> 00:01:53,046

나아가서 그들이 살던 집이나 성장한 지역, 그가 남긴 저작물, 묘소 등을 답사한다면 그 흥미와 친근감은 더해지게 되죠.

9

00:01:53,046 --> 00:02:01,855

인물사 탐구의 두번째 장점은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

00:02:01,855 --> 00:02:14,534

인류역사 나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을 탐구해 보고 역사 속 인물을 현재의 되살림으로써

11

00:02:14,534 --> 00:02:25,111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고 올바른 인간관에 대한 안목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00:02:25,111 --> 00:02:40,627

예컨대 왕건에게서는 바람직한 정치적 지도자상을 그리고 김구 같은 분에게서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려 노력한 인물상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13

00:02:40,627 --> 00:02:55,275

세 번째로 인물사 탐구는 역사의 과학적 인식과 구조적 이해를 내세우는 사관에서 간과 할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14

00:02:55,275 --> 00:03:12,025

사학계 일부에서 현재 행해지는 역사에 대한 사회, 경제적, 구조적 파악에 대한 경향은 역사를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15

00:03:12,025 --> 00:03:27,340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를 집단화, 구조화함으로써 역사 발전에 있어서의 인간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집니다.

16

00:03:27,340 --> 00:03:40,186

또한 모든 인간은 역사의 전개에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그가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입장에 따라 책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17

00:03:40,186 --> 00:03:51,965

예컨대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보석을 몰래 들여오려던 한 시민이있고 또 한 사람은 상공부장관이 있다고 칩시다.

18

00:03:51,965 --> 00:04:03,109

그 두 사람이 공항에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행위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는 없겠죠.

19

00:04:03,109 --> 00:04:08,781

그 행위가 미치는 파장과 그에 대한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

00:04:08,781 --> 00:04:20,727

즉 인물사 탐구는 역사의 구조적 파악 방식이 간과하기 쉬운 인간의 역할을 얹으로써 인간 개개인뿐 아니라

21

00:04:20,727 --> 00:04:30,670

각 방면의 지도자들에게 경각심과 아울러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22

00:04:30,670 --> 00:04:36,643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인물사 탐구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23

00:04:36,643 --> 00:04:48,187

그것은 잘못하면 한 시대의 역사가 몇몇 인물에 의해 주도된 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4

00:04:48,187 --> 00:04:58,931

예컨대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이순신을 떠올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하면 김유신을 떠올리죠.

25

00:04:58,931 --> 00:05:11,711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나치게 영웅시해서 결점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신성시한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26

00:05:11,711 --> 00:05:22,188

몇몇 인물이 역사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들이 역사를 좌우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27

00:05:22,188 --> 00:05:35,568

그들의 행동이나 업적은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간 민중의 희생이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8

00:05:35,568 --> 00:05:40,907

또 잘못하면 흑백 논리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29

00:05:40,907 --> 00:05:53,519

즉 동시대의 라이벌 인물을 다루게 되면 누구는 영웅이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악인이라는 그런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30

00:05:53,519 --> 00:05:57,623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31

00:05:57,623 --> 00:06:09,30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물에 주목하기 이전에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면 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32

00:06:09,302 --> 00:06:17,110

그리고 그 인물들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00:06:17,110 --> 00:06:35,762

요약해보면 인물사 탐구는 다른 많은 민중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는 약점이 있음에도 올바른 인간관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

00:06:35,762 --> 00:06:47,607

더욱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한 생을 살아갔다는 측면에서 흥미와 친근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5

00:06:47,607 --> 00:06:54,380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인물사 연구의 방법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36

00:06:54,380 --> 00:07:08,694

우선 시대별 상황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각 인물의 행동과 역사의 전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한 뒤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37

00:07:08,694 --> 00:07:18,871

인물들의 활약과 사상, 그들의 라이벌들이 선택한 길과 후대의 평가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38

00:07:18,871 --> 00:07:31,651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사건 뿐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간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39

00:07:31,651 --> 00:07:41,761

자 그럼 다음으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서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0:00:20,020 --> 00:00:23,790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00:00:23,790 --> 00:00:32,966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서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00:00:32,966 --> 00:00:45,078

우선 나중에 가면 고구려와 백제가 쟁패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

00:00:45,078 --> 00:00:54,154

우리나라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 또 어떤 분은 뎨석기 시대라고 합시다마는 구석기 시대부터 비롯되었습니다.

5

00:00:54,154 --> 00:01:02,796

이 시기에 불의 사용이 시작되었으며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을 겪게 되었고

6

00:01:02,796 --> 00:01:08,468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무기 사용으로 정복전쟁이 시작되어

7

00:01:08,468 --> 00:01:13,206

철기 시대를 거쳐 고대국가가 성립되었습니다.

8

00:01:13,206 --> 00:01:21,815

고대국가는 영토 확장을 꾀하고 민을 통제하기 위해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9

00:01:21,815 --> 00:01:27,454

그리고 사상적 통일을 위해 불교를 수용하였죠.

10

00:01:27,454 --> 00:01:33,993

또 왕위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고착시켰습니다.

11

00:01:33,993 --> 00:01:40,366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국가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었습니다.

12

00:01:45,338 --> 00:01:55,448

우리 역사에서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을 벌인 시대입니다.

13

00:01:55,448 --> 00:02:01,287

기록상 제 일 먼저 건국했다고 나오는 국가는 신라였습니다.

14

00:02:01,287 --> 00:02:10,430

즉 B.C.69년에 사로 6촌의 촌장들이 모여서 임금을 세울 것을 논의하다

15

00:02:10,430 --> 00:02:20,707

양산 밑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서 알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박혁거세였습니다.

16

00:02:20,707 --> 00:02:34,154

그가 계룡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나라 이름을 서라벌 혹은 사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17

00:02:34,154 --> 00:02:43,496

그때가 바로 B.C.57년인데 그 B.C.57년이 신라의 건국 연대로 《삼국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18

00:02:43,496 --> 00:02:51,671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되었다고 하는 그 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

00:02:51,671 --> 00:03:06,719

오히려 고구려가 더 일찍 건국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00:03:06,719 --> 00:03:13,293

이어서 고구려와 백제가 건국되어서 삼국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1

00:03:13,293 --> 00:03:22,035

삼국은 때로는 협조 관계를 유지했지만 대부분 끊임없는 상쟁을 벌였습니다.

22

00:03:22,035 --> 00:03:28,374

특히 4세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23

00:03:28,374 --> 00:03:39,986

그런데 사실 이 두 국가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국가로서 둘 다 부여족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24

00:03:39,986 --> 00:03:50,997

우선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남하한 고주몽이 건국했다고 기록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25

00:03:50,997 --> 00:04:01,274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을 보면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은 유화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

00:04:01,274 --> 00:04:11,284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사통한 죄로 우발수라는 시냇가에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27

00:04:11,284 --> 00:04:19,759

유화부인은 동부여의 왕이던 금와왕에게 발견되어 궁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8

00:04:19,759 --> 00:04:29,202

유화부인은 햇빛을 몸에 받고 알을 낳았는데 거기서 고주몽이 태어났던 것이죠.

29

00:04:29,202 --> 00:04:39,879

그 고주몽은 활을 잘 쏘았을 뿐 아니라 재능도 뛰어나서 부여 의 왕자들은 이를 매우 시기했습니다.

30

00:04:39,879 --> 00:04:54,594

이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한 어머니의 권고로 고주몽은 남쪽으로 망명해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홀본 지역에 이르러서 도움을 했습니다.

31

00:04:54,594 --> 00:04:59,198

홀본 지역은 지금의 중국 환인 지역에 해당이 되죠.

32

00:04:59,198 --> 00:05:06,639

이가 곧 고구려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를 졸본부여라고도 했습니다.

33

00:05:06,639 --> 00:05:10,376

북부여의 한 일파였기 때문입니다.

34

00:05:10,376 --> 00:05:21,421

물론 고구려가 건국된 압록강 중류 유역에는 이미 기원전 4세기경부터 예맥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5

00:05:21,421 --> 00:05:31,297

따라서 이 주몽 집단은 선주민들과의 적당한 타협과 협조로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

00:05:31,297 --> 00:05:45,411

고구려의 중심 세력은 주몽 집단이라 여겨지는 계루부를 비롯해서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등 5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37

00:05:45,411 --> 00:05:50,917

한편 백제 역시 부여족의 일파였습니다.

38

00:05:50,917 --> 00:05:59,659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건국자 온조는 고주몽의 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39

00:05:59,659 --> 00:06:14,273

고주몽은 동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에 이르렀는데 졸본부여의 왕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맞게 했습니다.

40

00:06:14,273 --> 00:06:21,013

왕이 죽자 그는 선왕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41

00:06:21,013 --> 00:06:33,326

여기서 그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에서 주몽의 전처 소생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42

00:06:33,326 --> 00:06:40,166

고주몽이 이쪽 졸본 부여로 오기 전에 이미 동부에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43

00:06:40,166 --> 00:06:47,807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을 이미 낳고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죠.

44

00:06:47,807 --> 00:07:00,653

그러자 자신들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 짐작한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45

00:07:00,653 --> 00:07:07,627

이 건국 연대가 B.C.18년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46

00:07:07,627 --> 00:07:12,265

이것이 모태가 되어 백제가 탄생 한 것이죠.

47

00:07:12,265 --> 00:07:16,369

비류는 미추홀, 지금의 인천 지역에 해당되죠.

48

00:07:16,369 --> 00:07:26,078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해 국호를 처음에는 십제라고 했습니다.

49

00:07:26,078 --> 00:07:36,856

그런데 후일 국가 경영에 실패한 비류 세력이 온조에게 합세함으로써 백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0

00:07:36,856 --> 00:07:52,839

물론 같은 기록에는 백제의 건국자가 비류라는 설도 소개되어 있어서 혼란을 주지만 백제 건국의 주체 세력이 부여족 계통의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51

00:07:52,839 --> 00:08:05,184

즉 백제는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어느 족단이 한강 유역에서 세력을 넓혀 이웃의 소국을 정복하여 성립된 국가인 것입니다.

52

00:08:10,156 --> 00:08:20,266

그러나 정치나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동족이란 요인은 별것이 아니었죠.

53

00:08:20,266 --> 00:08:26,672

부자나 형제간이라도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54

00:08:26,672 --> 00:08:34,413

이들 양 국가가 성장하면서 세력 확장을 위한 경쟁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55

00:08:34,413 --> 00:08:44,223

자 그렇게 해서 삼국이 성립됐지만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백제였습니다.

56

00:08:44,223 --> 00:08:49,829

백제는 착실하게 내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57

00:08:49,829 --> 00:09:02,775

2세기 후반에는 중국 내부의 혼란으로 군현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많은 유민이 북방에서 내려왔습니다.

58

00:09:02,775 --> 00:09:07,680

이는 백제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59

00:09:07,680 --> 00:09:19,525

그러다가 3세기 중엽인 고이 왕대에 이르러 백제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60

00:09:19,525 --> 00:09:33,639

동왕 27년에는 관제를 정비하여 6좌평 제도를 두고 16단계의 관 등을 제정했으며 품계에 따른 복색을 정했습니다.

61

00:09:33,639 --> 00:09:44,250

이는 왕을 정점으로 신료들의 서열과 체계를 정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2

00:09:44,250 --> 00:09:59,532

동왕 29년에는 관리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3배를 보상하고 종신토록 금고에 처한다는 법령을 반포 하기도 했습니다.

63

00:09:59,532 --> 00:10:09,375

이러한 조치로 고이왕은 전제왕권의 체제를 강고히 하고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64

00:10:09,375 --> 00:10:22,221

중국의 역사책인 《주서》나 《수서》에는 백제의 시조가 구이로 나와 있는데 이는 바로 고이왕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65

00:10:22,221 --> 00:10:31,831

즉 중국에서는 고이왕을 백제의 시조로 인식할 만큼 국가 체제를 일신한 왕이었 다는 것이죠.

66

00:10:31,831 --> 00:10:42,074

이후 백제는 4세기 중엽인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67

00:10:42,074 --> 00:10:48,114

이른바 이 시기가 백제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8

00:10:48,114 --> 00:10:56,022

이 시기는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 근구수왕의 집권기였죠.

69

00:10:56,022 --> 00:11:03,162

왕위에 오른 근초고왕은 우선 왕권에 반발하는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70

00:11:03,162 --> 00:11:10,636

그리고 관등을 세분화해서 관리들의 서열 체계를 분명히 했죠.

71

00:11:10,636 --> 00:11:19,945

종래에 술 계층 무슨 술 무슨 술 들어가는 그런 계층을 달술에서 나술까지의 5등급으로 하고

72

00:11:19,945 --> 00:11:32,291

덕자 들어가는 그런 계층도 장덕에서부터 대덕까지의 5등급으로 분화함으로써 명령 계통의 일원화를 꾀했던 것이죠.

73

00:11:32,291 --> 00:11:43,569

지방에 대 한 통제도 강화해서 담로제라는 것을 실시하여 지방세력의 근거지를 통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74

00:11:43,569 --> 00:11:51,210

정신적 결속력도 강화했는데 이는 역사의 편찬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75

00:11:51,210 --> 00:11:57,917

이에 따라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 라는 역사책을 편찬을 했죠.

76

00:11:57,917 --> 00:12:09,628

왕실 중심으로 전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함으로써 왕실의 위엄과 이에 대한 자발 적인 복종심을 유도하려 한 것입니다.

77

00:12:09,628 --> 00:12:22,608

관리들의 공과도 기록해서 신상필벌 체제를 강화했으니 이는 유교 정치 이념에 입각한 지배체제 정비였습니다.

78

00:12:22,608 --> 00:12:30,649

내부적인 체제를 정비한 근초고왕은 대외적인 팽창 정책을 또 썼습니다.

79

00:12:30,649 --> 00:12:44,964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들을 복속국화했으며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마한을 정복하고 영역으로 편입을 했던 것이죠.

80

00:12:44,964 --> 00:12:50,269

중국 요서지방까지 진출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81

00:12:50,269 --> 00:12:57,576

이 기록에 대해서는 믿는 학자들도 있고 믿지 못한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마는

82

00:12:57,576 --> 00:13:10,189

분명히 중국 측 기록에는 백제가 요서지방까지 진출해서 그 지역에 백제군이라는 그런 군현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3

00:13:10,189 --> 00:13:14,760

이제 남은 것은 북방의 고구려였습니다.

84

00:13:14,760 --> 00:13:25,471

북쪽으로 진출해 옛 대방군 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하자 고구려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85

00:13:30,442 --> 00:13:34,713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86

00:13:34,713 --> 00:13:44,056

고구려는 1세기 초에 이르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87

00:13:44,056 --> 00:13:50,830

이러한 팽창 정책에서 중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88

00:13:50,830 --> 00:13:56,101

왕망이 세운 신나라와의 충돌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89

00:13:56,101 --> 00:14:06,278

왕망이란 사람은 신의 반발에 반란을 일으킨 흉노를 토벌하는 데 고구려군을 동원시켰습니다.

90

00:14:06,278 --> 00:14:17,022

그러나 마지못해 출동한 고구려군은 모두 도망했다가 오히려 현도군의 변경을 공격했습니다.

91

00:14:17,022 --> 00:14:30,736

이에 분개한 왕망은 고구려를 하구려 즉 높을 고 자를 아래 하 자로 고쳐 불러서 고구려라는 국가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92

00:14:30,736 --> 00:14:36,442

이러한 중국과의 충돌은 태조왕 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93

00:14:36,442 --> 00:14:47,353

그는 동으로 옥조를 공격하여 복속시 키고 요동군과 현도군의 두 군을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94

00:14:47,353 --> 00:14:55,094

그리하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요동 태수를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95

00:14:55,094 --> 00:15:03,435

고구려의 요동 진출 노력은 차대왕대와 신대왕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96

00:15:03,435 --> 00:15:10,643

고국천왕대에 와서는 왕권이 더욱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도 정비되었습니다.

97

00:15:10,643 --> 00:15:21,253

부족적인 전통을 유지하던 오부의 명칭이 단순한 방향만 표시하는 동, 서, 남, 북, 중의 오부로 개편되었죠.

98

00:15:21,253 --> 00:15:38,003

즉 왕실이던 계루부를 중심에 해당하는 내부(內部)로 고친 것을 비롯하여 절노부는 북부, 순노부는 동부, 관노부는 남부, 소노부는 서부로 개명한 것이죠.

99

00:15:38,003 --> 00:15:49,281

이 조치는 이제 오부의 독립 부족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계루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었죠.

100

00:15:49,281 --> 00:15:56,155

그리고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습니다.

101

00:15:56,155 --> 00:16:08,567

이는 왕의 형제를 제치고 현 왕의 직계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여 왕권의 수직적인 승계를 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102

00:16:08,567 --> 00:16:21,113

아울러 특정 부족인 연나부를 왕비족으로 선택하여 그 부족과는 연합을 꾀했지만 다른 부족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103

00:16:21,113 --> 00:16:39,098

이렇게 체제를 정비한 고구려는 계속 중국과 대립하다가 동천왕대에 이르러 위나라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는 불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104

00:16:39,098 --> 00:16:51,577

그러나 미천왕대에는 국력을 가다듬어 요동의 현도성을 크게 공파 하고 서안평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105

00:16:51,577 --> 00:16:59,785

그 뒤 낙랑군과 대방군까지 공격하여 중국이 설치한 군현은 없어지게 되었죠.

106

00:16:59,785 --> 00:17:04,790

이 해가 바로 A.D.313년입니다.

107

00:17:04,790 --> 00:17:11,497

이렇듯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립은 국력을 소진케 했죠.

108

00:17:11,497 --> 00:17:19,905

물자에 대한 손실은 물론이고 전쟁에 지친 백성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109

00:17:19,905 --> 00:17:24,209

재정의 적자는 불보듯 뻔했던 것이죠.

110

00:17:24,209 --> 00:17:28,847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국원왕대가 도래했습니다.

111

00:17:28,847 --> 00:17:33,385

이때에도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죠.

112

00:17:33,385 --> 00:17:52,204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던 모용씨의 침입을 받아 수도인 환도성을 잃기도 했고, 모용씨는 4만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이에 고국원왕은 5만의 병력으로 맞섰습니다.

113

00:17:52,204 --> 00:18:00,846

그러나 적은 예상을 뒤엎고 험하고 비좁은 남쪽 통로로 침입을 했습니다.

114

00:18:00,846 --> 00:18:11,924

고국원왕은 할 수 없이 수도를 버리고 피신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환도성은 적에게 약탈당했습니다.

115

00:18:11,924 --> 00:18:23,068

그 약탈물에는 선왕이었던 미천왕의 시신이 포함되어 있었고 왕비와 5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16

00:18:23,068 --> 00:18:28,607

고구려에게는 아주 치명적 인 타격이 되었던 것이죠.

117

00:18:28,607 --> 00:18:35,714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백제의 북방 진출 정책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18

00:18:35,714 --> 00:18:42,654

369년 고국원왕은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19

00:18:42,654 --> 00:18:48,393

군사 2만을 거느리고 백제의 북쪽 변경을 쳤던 것이죠.

120

00:18:48,393 --> 00:18:57,102

그러나 오히려 태자였던 근구수가 거느린 군대에 의해 치양, 지금의 황해도 백천을 가리킵니다.

121

00:18:57,102 --> 00:19:01,406

치양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122

00:19:01,406 --> 00:19:09,848

이는 고구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2년 뒤에 고구려는 다시 한번 백제를 치게 되지요.

123

00:19:09,848 --> 00:19:18,657

그러나 패강 지금의 예성강 전투에서 백제군의 기습을 받아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124

00:19:18,657 --> 00:19:22,327

백제를 너무 얕본 탓이었죠.

125

00:19:22,327 --> 00:19:30,469

게다가 두 번에 걸친 고구려의 선제 공격은 백제를 자극했습니다.

126

00:19:30,469 --> 00:19:42,614

그래서 371년 겨울에 백제 근초고왕 부자는 3만여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기습했습니다.

127

00:19:42,614 --> 00:19:58,997

당시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고 고구려는 수도 함락과 국왕의 전사라는 대위 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28

00:19:58,997 --> 00:20:08,106

이 시기는 고구려에게 치욕의 세월이었지만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한 시점이었습니다.

129

00:20:08,106 --> 00:20:25,457

태자 시절부터 아버지의 정복 사업을 크게 도운 근구수왕은 고구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동왕 3년 10월에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130

00:20:25,457 --> 00:20:44,409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또한 중국의 역사서인 《송서》와 《양서》 등에는 백제가 요서지방을 경략한 사실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근초고왕대의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131

00:20:44,409 --> 00:20:51,049

자 그러면 고구려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132

00:20:51,049 --> 00:20:58,957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소수림왕은 부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133

00:20:58,957 --> 00:21:08,934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단결과 일사분란한 국가 체제라고 생각을 했죠.

134

00:21:08,934 --> 00:21:23,382

그 뜻은 차례로 실현되었는데 이는 그간 지속되어 온 외부의 도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135

00:21:23,382 --> 00:21:39,865

고구려를 괴롭히던 모용씨의 전연이 전진왕 부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백제도 근초고왕 이후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136

00:21:39,865 --> 00:21:49,908

게다가 중국 쪽에서 망명해온 한인 관료들은 개혁을 도울 인적 자원이 되었던 것이죠.

137

00:21:49,908 --> 00:21:56,848

그는 우선 동왕 2년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138

00:21:56,848 --> 00:22:02,421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39

00:22:02,421 --> 00:22:15,000

국민의 정신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기에 불교를 중심으로 국민의 정신적 통일을 꾀하려 한 것이죠.

140

00:22:15,000 --> 00:22:19,771

그리고 그 해 태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141

00:22:19,771 --> 00:22:28,880

이는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유교적 관료의 양성이라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었죠.

142

00:22:28,880 --> 00:22:39,558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효의 논리를 강화해서 국가와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죠.

143

00:22:39,558 --> 00:22:44,296

이어 동왕 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144

00:22:44,296 --> 00:22:57,743

율이라는 것은 범죄나 형벌에 관한 규정 등 일종의 금지법이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제도 전반에 관한 일종의 명령법이었습니다.

145

00:22:57,743 --> 00:23:07,185

이런 율령의 제정과 공포를 통해 그는 왕권의 합법화와 정점화를 꾀했습니다.

146

00:23:07,185 --> 00:23:15,127

소수림왕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 고국양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147

00:23:15,127 --> 00:23:20,732

이때는 잠시 위기가 닥쳐오기도 했죠.

148

00:23:20,732 --> 00:23:39,184

전진의 부견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모용수 의 후연이 등장함으로써 후연과 일대 격전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고구려가 패하여 요동지역을 잃고 말았습니다.

149

00:23:39,184 --> 00:23:48,326

그러나 뒤를 이은 광개토왕대에 고구려는 넓은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150

00:23:48,326 --> 00:23:54,232

광개토왕은 고국양왕의 아들인데 원래 광개토왕은 시호죠.

151

00:23:54,232 --> 00:23:55,534

시호.

152

00:23:55,534 --> 00:24:00,906

시호인데 광개토왕의 원래 시호는 상당히 겁니다.

153

00:24:00,906 --> 00:24:09,781

광개토왕의 원래 시호는 국강상광개 토경평안호태왕이라는 그런 시호였죠.

154

00:24:09,781 --> 00:24:22,761

그런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떤 사학자가 널리 영토를 개척한 왕이라는 뜻에서 광개토에다가 왕자를 붙여서 광개토왕이라고 했는데

155

00:24:22,761 --> 00:24:36,575

중국에서는 광개토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는 뜻의 맨 마지막 구절 즉 호태왕이라는 것을 따가지고

156

00:24:36,575 --> 00:24:46,785

광개토왕을 부르게 되어서 한국에서는 광개토왕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호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7

00:24:46,785 --> 00:24:56,828

그 두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158

00:24:56,828 --> 00:25:04,035

그는 아버지 고국양왕이 요동지역을 잃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159

00:25:04,035 --> 00:25:14,913

그는 온 힘을 다해 요동지역은 물론이고 여타 지역을 정복해 대제국을 이루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160

00:25:14,913 --> 00:25:23,021

그의 정복 사업은 현재 중국 길림성에 있는 광개토왕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1

00:25:23,021 --> 00:25:32,697

그는 우선 시라무렌 강 유역의 거란으로 추정되는 비려라는 국가를 공격하여 점령을 했죠.

162

00:25:32,697 --> 00:25:38,236

영락 6년에는 백제를 친히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163

00:25:38,236 --> 00:25:53,184

광개토왕 비문에 의하면 이때 백제의 58개 성과 700여 개의 촌을 점령하고 아신왕의 동생을 비롯한 포로들을 데리고 개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64

00:25:53,184 --> 00:26:00,425

398년에는 연해주 방면의 숙신을 정벌하기도 했죠.

165

00:26:00,425 --> 00:26:13,705

이듬해에 신라의 요청을 받아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왜를 물리쳤으며 410년에는 동부여를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166

00:26:13,705 --> 00:26:24,950

그의 정복 사업으로 고구려는 그동안 중국 민족과 쟁탈의 대상이던 요동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게 됐죠.

167

00:26:24,950 --> 00:26:29,254

만주대륙의 결국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168

00:26:29,254 --> 00:26:36,528

널리 영토를 개척했다는 의미의 시호에 걸맞는 그런 정복 사업이었습니다.

169

00:26:36,528 --> 00:26:43,168

이런 가운데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왕위에 올랐죠.

170

00:26:43,168 --> 00:26:54,646

고구려가 이렇게 영토를 개척하는 국력을 과시해 가는 데 반해 백제는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71

00:26:54,646 --> 00:27:03,088

고구려의 남침을 근구수왕이나 진사왕은 그런대로 잘 막아냈습니다.

172

00:27:03,088 --> 00:27:15,233

그러나 아신왕 때에는 광개토왕의 침략을 맞아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173

00:27:15,233 --> 00:27:26,878

뿐만 아니라 왕의 동생을 비롯한 대신 10여 명을 인질로 보내 고구려의 복속국이 되었지요.

174

00:27:26,878 --> 00:27:35,320

그런 아신왕이 재위 14년 만에 죽자 후계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75

00:27:35,320 --> 00:27:41,493

그 형제들 사이에서 후계자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176

00:27:41,493 --> 00:27:50,735

아신왕의 둘째 동생 훈해는 외국에 가 있던 태자를 왕위에 앉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77

00:27:50,735 --> 00:27:56,908

이미 그는 아신왕 3년에 태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178

00:27:56,908 --> 00:28:07,352

그러나 막내 동생인 접례는 태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하여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179

00:28:07,352 --> 00:28:14,826

본국으로 오고 있던 태자는 귀국하지 못하고 섬에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80

00:28:14,826 --> 00:28:26,671

결국 해충을 비롯한 이들이 접례를 살해 하고 태자를 맞이하여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곧 전지왕이었습니다.

181

00:28:26,671 --> 00:28:34,646

전지왕은 해씨를 왕비로 맞이함으로써 왕비족의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182

00:28:34,646 --> 00:28:46,124

그와 더불어 상좌평직을 신설해 여러 좌평을 통솔케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동생 여신을 임명했습니다.

183

00:28:46,124 --> 00:28:49,427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죠.

184

00:28:49,427 --> 00:28:57,268

한편 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중국 동진과의 외교도 계속했습니다.

185

00:28:57,268 --> 00:29:08,680

이후 비유왕 때에는 여신이 죽자 해수가 상좌평에 임명되어 외척이 발호하기도 했습니다.

186

00:29:08,680 --> 00:29:14,919

이런 상황에서 비유왕의 큰아들 개로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87

00:29:14,919 --> 00:29:29,467

개로왕은 왕족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했는데 본인을 대왕이라고 칭하고 왕 족들에게 왕의 칭호를 주어 귀족들 위에 있게 했던 것이죠.

188

00:29:29,467 --> 00:29:34,839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귀족들의 불만을 낳았습니다.

189

00:29:34,839 --> 00:29:41,446

이는 귀족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190

00:29:41,446 --> 00:29:52,657

그는 고구려의 남침에 대한 방비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개로왕 15년에는 고구려에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191

00:29:52,657 --> 00:29:59,931

한편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목책을 설치했습니다.

192

00:29:59,931 --> 00:30:13,378

북한산성에도 군사를 주둔시켜 수비케 했고 동왕 18년에는 중국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적인 원조도 요청했습니다.

193

00:30:13,378 --> 00:30:20,885

당시 고구려에서는 장수왕이 오랜 집권 체제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194

00:30:20,885 --> 00:30:27,725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왕이었던 광개토왕비를 세웠습니다.

195

00:30:27,725 --> 00:30:45,910

광개토왕비는 장수왕 2년 부왕이었던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높이가 6.39m인 자연석의 면을 다듬고 1775자에 달하는 글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196

00:30:45,910 --> 00:31:00,458

물론 이 비는 세월이 오래된 데다가 발견 당시 덮여 있던 이 끼를 태우는 과정에서 파손되어서 141자 정도는 형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97

00:31:00,458 --> 00:31:16,674

이 비는 현재의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데 처음 발견된 해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1877년에서 1882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8

00:31:16,674 --> 00:31:36,427

비문의 내용은 대략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서론 격으로 고구려의 건국신화 와 시조인 추모왕과 유리왕, 대주류왕 등의 왕위 계승과 광개토왕의 행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

00:31:36,427 --> 00:31:53,344

둘째 부분은 본론에 해당하는데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광개토왕의 수묘 연호 즉 묘를 지키는 호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

00:31:53,344 --> 00:32:06,824

그러나 무엇보다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가장 강조 하는데 장수왕이 부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를 본받고자 했기 때문이죠.

201

00:32:06,824 --> 00:32:20,772

한편으로 장수왕은 중국의 남조와 북조에 사신을 파견하여 등거리 외교를 펼치더니 동왕 15년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습니다.

202

00:32:20,772 --> 00:32:29,414

중국의 북방에는 강력한 북위가 있어서 북쪽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3

00:32:29,414 --> 00:32:33,418

즉 남진정책을 표방한 것이었죠.

204

00:32:33,418 --> 00:32:43,428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433년 동맹을 맺어서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205

00:32:43,428 --> 00:32:56,341

그러나 장수왕은 중 도림을 파견해서 백제의 국력을 약화시킨 뒤 백제의 수도 한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했습니다.

206

00:32:56,341 --> 00:33:08,419

즉 장수왕은 승려였던 도림을 간첩으로 백제에 파견해가지고 이 도림이 백제 개로왕과 바둑을 미끼로 해서

207

00:33:08,419 --> 00:33:18,396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개로왕에게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게 해서 국력을 쇠퇴하게 한 것이죠.

208

00:33:18,396 --> 00:33:24,702

그런 뒤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침략하게 한 것입니다.

209

00:33:24,702 --> 00:33:41,252

이렇게 해서 개로왕은 결국은 살해당하고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은 몇 명의 신하와 웅진으로 남하하여 나라를 유지했지만 국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210

00:33:41,252 --> 00:33:51,629

반면 고구려는 만주 일대는 물론 조령 이북 땅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을 했죠.

211

00:33:51,629 --> 00:34:08,413

당시 중국의 위협에 노출된 국제 상황 속에서 삼국의 지도자들은 전쟁 없는 통합을 이루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212

00:34:08,413 --> 00:34:16,621

각국의 성장과 발전 이상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었죠.

213

00:34:16,621 --> 00:34:29,100

그러나 국제 정세와 미래를 멀리 보지 못 한 삼국의 지도자들은 또다시 불필요한 경쟁과 대립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214

00:34:29,100 --> 00:34:40,645

자 그러면 이제 백제와 신라가 동맹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

00:34:40,645 --> 00:34:52,09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 성왕 사이에 벌어진 관산성 전투 또한 그러한 배경 하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216

00:34:52,090 --> 00:35:01,332

이 전투는 양국 간에 벌어진 것이지만 단순히 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17

00:35:01,332 --> 00:35:06,871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전투였죠.

218

00:35:06,871 --> 00:35:19,016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로 갈라져 있던 시기로 이 틈을 타서 돌궐이 고구려의 북방을 침략했죠.

219

00:35:19,016 --> 00:35:26,190

게다가 고구려는 북제와의 관계도 불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220

00:35:26,190 --> 00:35:42,273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5세기에 광개토왕, 장수왕대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6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력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21

00:35:42,273 --> 00:35:50,014

문자명왕대에는 신라, 백제 등과 싸웠으나 번번이 패배를 했죠.

222

00:35:50,014 --> 00:36:03,928

이 같은 계속적인 패배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한 나제 동맹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고구려의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23

00:36:03,928 --> 00:36:22,580

이 후 고구려는 잠시 국력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안장왕대에 두 차례에 걸친 백제 공격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안원왕대에도 백제의 침략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224

00:36:22,580 --> 00:36:32,223

그러나 안원왕이 죽고 양원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225

00:36:32,223 --> 00:36:45,069

545년 안원왕 말년에 고구려의 귀족들은 녹군과 세군으로 나누어서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226

00:36:45,069 --> 00:36:54,278

왕의 부인들이 각기 자신들의 소생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동원하여 싸운 것입니다.

227

00:36:54,278 --> 00:37:01,519

이 싸움에서 녹군이 승리하여 세군의 무리 2천여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28

00:37:01,519 --> 00:37:06,824

이 싸움의 여파는 양원왕이 즉위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29

00:37:06,824 --> 00:37:17,201

즉위 당시 양원왕의 나이는 겨우 8세로써 어린 왕을 둘러싸고 귀족들의 암투가 극심했습니다.

230

00:37:17,201 --> 00:37:28,512

이렇듯 왕위 계승전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된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신경을 써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231

00:37:28,512 --> 00:37:37,355

양원왕 7년 돌궐이 고구려의 신성과 백암성을 침입을 했고

232

00:37:37,355 --> 00:37:53,104

이듬해에는 북제의 문선제가 영주에와서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압력을 넣어 북위 말에 혼란을 피해 동쪽으로 이주해온 유민 5천여명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233

00:37:53,104 --> 00:38:03,180

이러한 내 우외환으로 고구려는 결국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34

00:38:03,180 --> 00:38:07,318

자 그러면 당시 백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235

00:38:07,318 --> 00:38:18,763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실시하자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을 했습니다.

236

00:38:18,763 --> 00:38:31,475

비유왕 7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그 이듬해 신라의 좋은 말 두필과 흰 기러기를 보냈죠.

237

00:38:31,475 --> 00:38:38,482

그러자 신라에서도 황금으로 만든 구슬을 보내옴으로써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238

00:38:38,482 --> 00:38:44,255

그러나 475년 장수왕 63년이죠.

239

00:38:44,255 --> 00:38:52,697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개로왕이 전사한 후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240

00:38:52,697 --> 00:39:01,939

부왕의 죽음으로 왕권이 실추된 틈을 타서 세력을 잡은 것은 왕비족이었던 해씨였습니다.

241

00:39:01,939 --> 00:39:09,980

병관좌평이던 해구라는 인물은 결국 문주왕을 살해했죠.

242

00:39:09,980 --> 00:39:15,686

그리고 13세이던 문주왕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243

00:39:15,686 --> 00:39:22,126

그가 곧 삼근왕인데 그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244

00:39:22,126 --> 00:39:29,667

이런 해씨의 진행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 왕비족이던 진씨 세력이었습니다.

245

00:39:29,667 --> 00:39:38,876

진남이라는 인물과 진노라는 인물이 왕 명을 받고 해구를 제거했죠.

246

00:39:38,876 --> 00:39:48,686

그 뒤를 이어 동성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는 신라 왕족인 비지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247

00:39:48,686 --> 00:40:00,097

이는 왕비족의 대두를 미연에 막자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아울러서 신라와의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248

00:40:00,097 --> 00:40:18,482

그는 또한 종래의 귀족을 배제하고 연씨, 백씨, 사씨와 같은 신흥 귀족을 등용했고 지방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하여 22명의 왕족을 담로라는 벼슬에 임명을 했습니다.

249

00:40:18,482 --> 00:40:37,735

그러나 신흥 귀족이었던 백가라는 사람이 다시 권력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왕의 친위부대를 관장하는 직책인 위사좌평에 있었는데 이는 지금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벼슬이었습니다.

250

00:40:37,735 --> 00:40:46,944

동성왕은 그를 가림성, 지금의 지명 으로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성산성을 얘기합니다.

251

00:40:46,944 --> 00:40:57,688

가림성으로 축출을 했는데 그러나 백가는 오히려 자객을 보내서 왕을 살해했던 것이죠.

252

00:40:57,688 --> 00:41:02,259

동성왕 다음으로 즉위한 것은 무령왕이었습니다.

253

00:41:02,259 --> 00:41:10,601

그는 일본에 있다가 백제로 와서 4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그런 인물이었죠.

254

00:41:10,601 --> 00:41:15,806

그는 우선 백가를 토벌하여 처단을 했습니다.

255

00:41:15,806 --> 00:41:24,648

그렇게 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 그는 몇 차례에 걸친 고구려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었습니다.

256

00:41:24,648 --> 00:41:37,428

중국의 양나라와 국교를 강화하여 영동대장군 즉 동쪽을 편안하게 한 큰 장군이다 하는 그런 작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257

00:41:37,428 --> 00:41:43,300

이때 백제는 중국의 사서에 다시 강국이 되었다.

258

00:41:43,300 --> 00:41:51,375

즉 한자로 하면 ‘갱위강국(更爲強國)’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59

00:41:51,375 --> 00:41:55,179

그의 뒤를 이어서 성왕이 즉위했죠.

260

00:41:55,179 --> 00:42:02,920

그는 동왕 16년 수도를 사비 지금의 부여죠, 부여로 옮겼습니다.

261

00:42:02,920 --> 00:42:15,332

좁은 웅진은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크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수도 자체가 넓고 광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이죠.

262

00:42:15,332 --> 00:42:24,008

또한 그는 백제의 뿌리를 찾아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263

00:42:24,008 --> 00:42:33,450

부여족의 일파이기 때문에 남쪽에 와서 부여족을 다시 흥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4

00:42:33,450 --> 00:42:38,389

새로운 마음으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265

00:42:38,389 --> 00:42:45,429

그러는 한편 검익과 같은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의 진흥을 꾀했습니다.

266

00:42:45,429 --> 00:42:52,770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불력의 힘을 빌고자 했던 것이죠.

267

00:42:52,770 --> 00:43:03,914

외교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중국 양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외국에도 문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268

00:43:03,914 --> 00:43:11,355

이로써 문제 발생 시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방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269

00:43:11,355 --> 00:43:16,994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에 빼앗긴 땅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270

00:43:16,994 --> 00:43:26,203

그는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71

00:43:26,203 --> 00:43:40,751

그 결과 동왕 18년에는 고구려의 우산성을 쳤으나 패했고 동왕 26년에는 고구려의 침략을 신라와의 공동 작전으로 격파했습니다.

272

00:43:40,751 --> 00:43:52,363

동왕 28년에는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다음 해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273

00:43:52,363 --> 00:43:59,370

자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4

00:43:59,370 --> 00:44:08,312

이즘 신라도 점차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창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275

00:44:08,312 --> 00:44:18,756

경주 평야에 자리잡고 있던 사로국이 성장하여 이루어진 신라는 박혁거세가 기원전 57년에 세운 국가이죠.

276

00:44:18,756 --> 00:44:25,796

이후에 박, 석, 김의 세 성 씨가 교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277

00:44:25,796 --> 00:44:32,670

그러다가 낙동강 동쪽의 큰 세력으로 성장한 시기는 내물왕대였습니다.

278

00:44:32,670 --> 00:44:40,044

그는 니사금이란 칭호 대신에 마립간으로 왕호를 바꾸었죠.

279

00:44:40,044 --> 00:44:47,818

이때부터 삼성교립제가 없어지고 김 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280

00:44:47,818 --> 00:44:59,430

한편 내물왕은 중국의 전진에 두 차례에 걸친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281

00:44:59,430 --> 00:45:10,607

이처럼 지리적 환경으로 뒤늦게 국가 체제를 정비한 신라는 지증왕대에 와서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282

00:45:10,607 --> 00:45:17,247

그는 우선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죠.

283

00:45:17,247 --> 00:45:23,687

우경을 장려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했습니다.

284

00:45:23,687 --> 00:45:29,526

이는 국가 재정 확보에 큰 기여를 했죠.

285

00:45:29,526 --> 00:45:33,597

국호도 새롭게 신라로 정했습니다.

286

00:45:33,597 --> 00:45:37,568

신라라는 국호가 이때 처음 생긴 것이죠.

287

00:45:37,568 --> 00:45:47,911

종래에 마립간이라 칭하던 칭호도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했으며 지방제도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288

00:45:47,911 --> 00:45:52,282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289

00:45:52,282 --> 00:45:57,721

법흥왕 대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더욱 갖춰졌습니다.

290

00:45:57,721 --> 00:46:06,697

그는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291

00:46:06,697 --> 00:46:15,773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을 했는데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292

00:46:15,773 --> 00:46:35,058

동왕 14년에는 불교를 공인하여 새로운 이념에 입각한 체제 정비를 꾀했고 동왕 19년에는 남쪽으로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는 등 영토 확장도 시도를 했습니다.

293

00:46:35,058 --> 00:46:43,233

이어 왕위에 오른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로서 7세에 즉위를 했습니다.

294

00:46:43,233 --> 00:46:49,139

때문에 처음에는 어머니의 섭정을 받았죠.

295

00:46:49,139 --> 00:47:00,050

그러나 19세가 되던 왕 12년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졌습니다.

296

00:47:00,050 --> 00:47:12,162

연호의 뜻 그대로 새롭게 나라를 여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친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297

00:47:12,162 --> 00:47:20,571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요약해보면 6세기 경 삼국의 형세는 고구려가 쇠약해지면서

298

00:47:20,571 --> 00:47:28,512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백제와 신라가 야망을 꿈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99

00:47:28,512 --> 00:47:34,785

고구려라는 대국에 맞서 양자는 동맹관계를 맺어 대항했는데

300

00:47:34,785 --> 00:47:47,164

나아가 이 동맹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켜서 중국에 필적하는 왕성한 나라를 이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그럴 시기였습니다.

1

00:00:20,020 --> 00:00:28,161

진흥왕이 왕위에 올라 먼저 착수한 것은 영토 확장 사업이었습니다.

2

00:00:28,161 --> 00:00:40,607

그는 왕 11년 백제와 고구려가 싸우는 틈을 타서 이사부를 파견하여 도살성과 금현성을 획득했습니다.

3

00:00:40,607 --> 00:00:54,154

이듬해에는 고구려가 돌궐의 침입으로 북방에 신 경을 쓰는 상황을 이용해서 거칠부 등 8장군을 보내 고구려의 10성을 차지했습니다.

4

00:00:54,154 --> 00:01:02,862

10성의 위치와 강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적극적인 영토 확장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5

00:01:02,862 --> 00:01:09,335

이 작전을 위해 진흥왕은 직접 낭성지역, 지금의 청주 지역이죠.

6

00:01:09,335 --> 00:01:12,872

낭성까지 행차를 했습니다.

7

00:01:12,872 --> 00:01:19,412

이렇게 신라와 백제는 공동작전으로 마침내 한강 유역을 수복했습니다.

8

00:01:19,412 --> 00:01:25,485

그러나 신라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하여

9

00:01:25,485 --> 00:01:36,796

여기에 새로운 주다라는 뜻으로써 신주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군단을 배치했던 것이죠.

10

00:01:36,796 --> 00:01:43,736

여기에 백제는 성왕의 딸을 신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11

00:01:43,736 --> 00:01:51,678

한강 하류유역을 빼앗긴 백제가 왜 자기의 딸을 신라에 보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12

00:01:51,678 --> 00:02:01,955

그런데 이는 신라를 방심하게 함으로써 반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함 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

00:02:01,955 --> 00:02:11,564

백제가 보복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신라가 의외로 백제가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자

14

00:02:11,564 --> 00:02:19,806

당장의 반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

00:02:19,806 --> 00:02:31,718

신라는 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성왕의 딸을 제2비로 삼기는 했지만 백제의 공격 가능성을 접지는 않았죠.

16

00:02:31,718 --> 00:02:39,192

결국 얼마 뒤에 성왕은 관산성 침입을 강행하게 된 것이죠.

17

00:02:39,192 --> 00:02:49,636

신라 진흥왕의 한강 하류 지역점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양국 간의 동맹 관계에 중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18

00:02:49,636 --> 00:02:56,009

결국 백제가 신라의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이죠.

19

00:02:56,009 --> 00:03:02,649

관산성을 공격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

00:03:02,649 --> 00:03:10,557

이 전투는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왜군의 합동 작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1

00:03:10,557 --> 00:03:23,169

이러한 연합군은 성왕의 아들 여창의 지휘로 관산성 근처에 구타모라(久陀牟羅)에다가 요새를 구축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22

00:03:23,169 --> 00:03:32,312

그리고 왜군의 선봉대가 돌격하여 화공작전을 벌임으로써 관산성을 함락했습니다.

23

00:03:32,312 --> 00:03:38,718

이에 놀란 신라는 북쪽의 신주 군주였던 김무력.

24

00:03:38,718 --> 00:03:41,721

김무력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25

00:03:41,721 --> 00:03:50,363

김무력의 군대를 동원하는 한편 전국에서 군대를 징발하여 관산성 탈환을 꾀했습니다.

26

00:03:50,363 --> 00:04:00,640

그러던 중 뒤이어 성왕이 직접 온다는 정보를 듣고 간첩을 이용하여 그 진로를 탐지했습니다.

27

00:04:00,640 --> 00:04:04,410

삼년산군 지금은 충북 보은 지방입니다.

28

00:04:04,410 --> 00:04:17,624

삼년산군의 지휘관이었던 도도의 지휘를 받은 복병은 성왕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성왕을 습격하여 전사케 했죠.

29

00:04:17,624 --> 00:04:35,842

성왕의 전사를 계기로 해서 신라군은 군사를 휘몰아 관산성을 탈 환하는 한편 좌평 4인과 백제 군사 2만 9천600명을 살해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0

00:04:35,842 --> 00:04:41,581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1

00:04:41,581 --> 00:04:55,928

“진흥왕 15년 7월 백제 성왕이 가야와 더불어 관산성을 공격하자 군주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나가 싸웠으나 패했다.

32

00:04:55,928 --> 00:05:09,242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주병을 이끌고 와서 교전함에 이르렀는데 비장이었던 삼년산군의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

33

00:05:09,242 --> 00:05:25,024

신라군이 승승장구하여 크게 이겨 좌평 4인과 사졸 2만 9천6백인을 죽이니 말 한 필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

00:05:25,024 --> 00:05:33,866

한편 당시의 전투 상황과 백제 상황의 최후를 일본 측 기록은 더욱더 상세 히 전하고 있습니다.

35

00:05:33,866 --> 00:05:40,873

그 기록에 의하면 “일찍이 여창, 여창은 성왕의 아들을 가리키죠.

36

00:05:40,873 --> 00:05:44,944

뒤에 위덕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37

00:05:44,944 --> 00:05:56,689

여창이 신라 정벌을 피하니 원로들이 간하기를 ‘하늘이 아직 함께 하지 않으니 화가 미칠까 두렵다’ 했다는 것이죠.

38

00:05:56,689 --> 00:06:03,296

여창이 말하기를 ‘늙었도다 어찌 그리 겁이 많은가.

39

00:06:03,296 --> 00:06:07,734

우리가 대국을 섬기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는가'

40

00:06:07,734 --> 00:06:17,543

그 아버지 성왕은 여창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행군하고 잠과 식사도 하지 못한 것을 걱정했으며

41

00:06:17,543 --> 00:06:24,984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결핍되었으나 아들의 효성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42

00:06:24,984 --> 00:06:30,022

이에 스스로 가서 맞아 위로하려 했다.

43

00:06:30,022 --> 00:06:39,699

신라는 성 왕이 친히 온다는 말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길을 끊고 쳐 격파했다.

44

00:06:39,699 --> 00:06:53,312

이때 신라가 좌지춘의 사마 고도라는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고도는 천한 노비요, 성왕은 유명한 임금이다.

45

00:06:53,312 --> 00:07:05,491

지금의 천한 노비로 하여금 유명한 임금을 죽이도록 하는 것은 후세에 전하여 입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했다.

46

00:07:05,491 --> 00:07:14,967

고도가 이에 성왕을 잡아 재배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왕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했다.

47

00:07:14,967 --> 00:07:23,276

그러자 성왕이 대답하기를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48

00:07:23,276 --> 00:07:34,654

고도가 또 말하기를 '우리 국법에는 맹약을 위배한 자는 비록 국왕이라도 마땅히 노비의 손으로 목을 쳐도 됩니다' 했다.

49

00:07:34,654 --> 00:07:47,400

성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허락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매번 생각함에 평상시에 고통이 뼈에 사무쳤는데 돌아보건대

50

00:07:47,400 --> 00:07:54,941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할 수가 없구나' 하고는 목을 빼어 참수를 허락했다.

51

00:07:54,941 --> 00:08:01,581

고도가 머리를 참하여 죽이고 땅속에 굴을 파 시체를 묻었다.

52

00:08:01,581 --> 00:08:14,260

이래서 땅 속에 굴을 파 시체를 묻었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록에는 또 그 시체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신라 왕궁 계단 밑에 묻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3

00:08:14,260 --> 00:08:24,504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백제인들이 신라에 대해서 얼마나 복수심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4

00:08:24,504 --> 00:08:31,611

그러자 여창도 포위당하여 탈출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55

00:08:31,611 --> 00:08:36,415

사졸들도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56

00:08:36,415 --> 00:08:40,887

활 쏘기에 능한 축자국조(筑紫國造), 일본 사람이겠죠.

57

00:08:40,887 --> 00:08:50,696

축자국조가 나아가 화살을 죄어 신라의 기병 중 가장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겨누어 쏘아 떨어뜨렸다.

58

00:08:50,696 --> 00:08:55,968

화살이 말 안장을 뚫고 갑옷의 목까지 관통했다.

59

00:08:55,968 --> 00:09:03,242

다시 계속하여 화살을 빗발처럼 전력을 다하여 쏘아 포위한 군대를 물리쳤다.

60

00:09:03,242 --> 00:09:10,416

이로 말미암아 여창 및 여러 장수들이 섯길을 따라 도망할 수 있었다.

61

00:09:10,416 --> 00:09:20,126

여창은 국조가 활을 쏘아 포위한 군대를 물리친 것을 찬양하여 안굴군이 라 명명했다.

62

00:09:20,126 --> 00:09:29,635

이에 신라의 장수들은 백제가 피폐한 줄을 알고 드디어 남김없이 멸할 것을 모의했다.

63

00:09:29,635 --> 00:09:34,173

그러나 한 장수가 이르기를 ‘불가하다.

64

00:09:34,173 --> 00:09:47,787

일본의 천왕이 임나의 일 때문에 여러 번 우리 국가를 책망했는데 하물며 다시 백제의 관가를 멸할 것을 모의한다면 반드시 후환을 부를 것이다'

65

00:09:47,787 --> 00:09:52,325

이렇게 결과가 갈린 원인은 무엇일까.

66

00:09:52,325 --> 00:10:03,769

먼저 백제가 패배한 요인은 왕이 단 40여 기로 왕자 여창을 보기 위해 출동했다는 점.

67

00:10:03,769 --> 00:10:10,910

또 하나는 이 전투에 대한 왕족과 귀족의 견해가 일치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68

00:10:10,910 --> 00:10:22,555

게다가 수도 의천도로 인한 대규모 토목 공사와 빈번한 전쟁으로 농민과 군사들이 피폐해진 그런 까닭도 있었습니다.

69

00:10:22,555 --> 00:10:31,631

반면 신라의 승리 요인으로선 우선 김무력의 활약을 들 수 있습니다.

70

00:10:31,631 --> 00:10:42,541

김무력은 법흥왕 19년 귀부한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김구해의 셋째 아들이었죠.

71

00:10:42,541 --> 00:10:58,257

그가 신라에 귀순한 후 귀족 계층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던 김무력은 자신의 충성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72

00:10:58,257 --> 00:11:06,132

또한 당시 신라는 전반적으로 국세가 확장되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73

00:11:06,132 --> 00:11:15,274

법흥왕대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진흥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왕태후의 섭정을 받으면서

74

00:11:15,274 --> 00:11:24,250

거칠부, 이사부 등의 장군들을 등용하여 영토 확장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75

00:11:24,250 --> 00:11:39,999

그러한 진흥왕의 행동은 관산성 전투 이후에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 등에 행차하여 순수비를 세운 데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6

00:11:39,999 --> 00:11:49,542

이 같은 진흥왕의 의욕과 진취 정신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77

00:11:49,542 --> 00:12:04,724

한편 이 전투의 결과로 백제는 그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가야 지역을 잃어버렸고 신진 귀족 세력들이 발호하면서 왕권이 위축되었습니다.

78

00:12:04,724 --> 00:12:11,797

또한 신라에 대한 무리한 복수전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79

00:12:11,797 --> 00:12:28,214

신라가 이 전투의 승리로 가야 지역을 획득하고 영토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함경남도 안변 근처까지 진출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세운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80

00:12:28,214 --> 00:12:41,393

게다가 신라 내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김무력 가문 이 급 부상해서 후일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한 반도 통일에까지 이른 것이죠.

81

00:12:41,393 --> 00:12:46,732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로 전개되었죠.

82

00:12:46,732 --> 00:12:57,843

양국 간의 협조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으며 계속된 복수전으로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83

00:12:57,843 --> 00:13:05,518

결국 성왕과 진흥왕은 좀 더 큰 역사를 이룩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 죠.

84

00:13:05,518 --> 00:13:14,693

중국이라는 커다란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대국 건설에 실패한 것입니다.

85

00:13:14,693 --> 00:13:22,268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역사적 안목이 결핍됐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86

00:13:22,268 --> 00:13:34,980

특히 진흥왕은 협력 관계를 깨고 동맹 관계에 있던 백제의 땅을 빼앗음으로써 양국이 기나긴 복수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87

00:13:34,980 --> 00:13:45,825

신라의 영토를 넓히는 데는 성공했으나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할 시기에 이웃 나라를 적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88

00:13:45,825 --> 00:13:58,437

신라와 백제의 동맹 관계가 깨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이후 삼국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89

00:13:58,437 --> 00:14:05,411

물론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90

00:14:05,411 --> 00:14:12,151

지금까지 삼국의 대립과 성왕, 진흥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1

00:14:12,151 --> 00:14:14,954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

00:14:14,954 --> 00:14:19,592

감사합니다.